

# 역사적 인물의 대중적 형상화

- 김훈의 『칼의 노래』와 전경린의 『황진이』를 중심으로 -

허 명 숙\*

## 차 례

- I. 들어가는 말
- II. 정치적 허무주의자로 재창안된 민족영웅—『칼의 노래』
  - 1. 실존적 고뇌를 상징하는 전쟁
  - 2. 탈정치성을 띤 ‘칼’
- III. 부르주아 여성으로 재창안된 봉건 여성—『황진이』
  - 1. 근대적 여성 주체의 내적 모순
  - 2. ‘자본화된 몸’의 기호
- IV. 결 론

## I. 들어가는 말

80년대, 우리는 ‘대중문화’라는 용어와는 별도로 ‘민중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 때 ‘민중문화’라는 용어는 문화예술과 계급, 혹은 사회주의 사상과의 관계를 지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상업문화, 퇴폐문화 등 대중문화의 불건강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기도 했다. 그런데 90년대 들어서 대중문화라는 용어로 포섭되지 않는 문화현상이 없을 정도로 그간의 대중

\* 숭실대

문화에 대한 곱지 않은 정서들은 무의미해졌다. 문화는 상품이며, 산업<sup>1)</sup>이란 후기자본주의 논리에 의해 대중/ 민중이란 용어가 서로 뒤섞여졌고, 또 이제 그에 대해 '민중문화' 진영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퇴폐/ 검열, 진보/ 탄압이란 한 시대를 엮어땀던 강박적 논리들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다만 대중적 수요, 대중적 선호도를 말해주는 '대박/ 쪽박' 만이 문제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문화의 영역에서 '팔리는 상품=좋은 작품'이란 등식은 여전히 상쾌하지 않다. 때문에 '홍행작'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둘 수 있는 문화비평의 요구가 한층 더 절박하다. 그것은 대중문화의 지형도를 그리는 작업이기도 한 때문이다.

역사물은 우리 문화에서 흥행 보증수표로 작동해 왔다. 특히 텔레비전 사극은 시청률 저조를 돌파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물론 텔레비전 사극의 흥행성은 스펙터클한 전투장면, 무협, 권력암투, 순정한 사랑, 현실의 알레고리, 영웅의 승리 등으로 특화된 몇몇 특징들과 깊은 관련이 있다.<sup>2)</sup> 그러나 무엇보다도 역사물의 흥행성은 '이미 알고 있는 정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중들은 '친숙한' 것에 절대적으로 사랑을 보내는가? 대답은 자명하게도 '그렇지 않다'이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라고 하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대중성 획득이라는 문제에는 '친숙성' 외에 어떤 다른 요소가 작동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동일한 것을 되풀이' 하되, '늘 똑같이 않게' 하기, 즉 '친숙하면서도 충격적이어야 하며, 쉬우면서도 인상적이어야 하며, 기교는 숙달되었지만 단순해야 한다.' '반복 재생산과 새로움 추구'라는 대중문화 양식적 코드가 현재의 대중적 역사소설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가를 고찰하기 위해 이 글은 시도되었다.

이순신 이야기인 『칼의 노래』(2001)와 황진이의 이야기인 『황진이』

1)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는 대중문화를 '문화산업'이란 말로 대체하고, '산업'으로 이해하려 했다. 대중문화가 '민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대중문화의 상업적 전략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였다. Th. W. 아도르노·M. 호르크하이머, 김유동 역, 『계몽의 변증법』, 문학과 지성사, 2001, 183-251면.

2) 손병우, 「TV 사극, 역사의 행간에서 벌이는 게임」, 『창작과 비평』, 2001, 가을, 351면.

(2004)<sup>3)</sup>는 이 글의 관심하는 바에 비추어 봤을 때 서로 먼 거리를 두고 있는 작품이다. 이순신의 이야기는 『난중일기』를 비롯, 원본이라 할 역사적 사실을 보증할 만한 기록을 갖추고 있는 반면, 황진이 이야기는 이덕형의 『송도기이』, 허균의 『성웅식소록』, 이공익의 『연려실기술』, 김천택의 『청구영언』, 유몽인의 『어우야담』 등 여러 야사와 야담에 간단하게 행적이 기록되어 있을 뿐, 정사 어디에도 상세한 기록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역사적 사실을 충실히 재현하려는 기록적 역사물과는 다른 질감을 보이는 작품들이다. 작가들 스스로 서문에서 재차 강조하듯이<sup>4)</sup> 이 작품들은 허구성에 대한 관습적 기대지평 쪽으로 부등호가 열린 ‘창안적 역사소설’<sup>5)</sup>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물의 재미는 사실(史實) 그 자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정사에 기록되지 않은 행간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행간을 채우는 것은 작가의 상상력이다. 그리고 작가의 상상력은 원본인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당대 현실의 맥락, 대중적 역사감각에 깊은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갈의 노래』와 『황진이』로 재창안된 이순신과 황진이는 일차적으로 ‘김훈의 이순신’, ‘전경린의 황진이’ 이면서, ‘우리 시대의 이순신, 황진이’이기도 하다. 김훈과 전경린에 의해 재창안된 역사적 인물들은 어떤 대중문화 코드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흥행코드를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화코드, 즉 ‘우리들이 살고 있는 조건을 바꾸어가는 창조적 능력’의 내적 논리를 읽기 위해 이 작업이 필요하다.

3) 이 글이 분석 대상을 삼은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김훈, 『갈의 노래 1-2』, 생각의 나무, 2004 개정판., 전경린, 『황진이 1-2』, 이룸, 2004.

4) 김훈은 『갈의 노래』의 〈일러두기〉를 통해 “이 글은 오직 소설로서 읽혀지기를 바란다.”라고 하였으며, 전경린은 『황진이』의 〈작가의 말〉을 통해 “엄정한 역사물이라기보다는 허구적 자유로움을 확보한 소설이라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라고 함으로써 자신의 작품이 역사적 사실보다는 허구적 상상력에 충실한 것임을 표명해 놓았다.

5) 터너는 창안적 역사소설은 소설의 자율성을 관습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상상력의 소비가 크면 클수록 형식적 장치의 정교함이 더 많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다: 공임순, 「역사소설의 개념과 장르적 유형론」, 대중서사학회 편, 『역사소설이란 무엇인가』, 예림기획, 2003, 33면.

## II. 정치적 허무주의자로 재창안된 민족영웅-『칼의 노래』

### 1. 실존적 고뇌를 상징하는 전쟁

『칼의 노래』은 역사소설로서는 드물게 1인칭 서술로 쓰여졌다는 점, 일대기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민족주의서사를 대표하는 이순신을 탈영웅화 했다는 점 등으로 대중문화 부문에서 새로운 역사소설의 징후로 거론되어 왔다. 이런 새로운 징후들과 더불어 『칼의 노래』에서 형상화된 이순신의 개성적인 이미지는 70년대 유신정권에 의해 구국영웅으로 성화되었던 이순신의 스테레오타입을 단번에 불식시킬 정도로 강렬하다. 이 작품에서 이순신은 사직과 전쟁을 냉소적으로 인식하고, 굶주림과 죽음의 공포로 울부짖는 백성들을 먹여 살릴 일에 강박되어 있고, 부상과 고문의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피폐한 장군일 뿐이다.

그는 몸으로써 전쟁을 느끼고, 몸으로써 전쟁을 치루고 있다. '몸으로써의 전쟁' 이라 함은 관념으로, 명분으로, 상징성으로 치루는 전쟁이 아니라는 뜻이다. 바꿔 말하면 『칼의 노래』에서 전쟁은 정치적 사건도, 역사적 사건도 아닌, 탈정치성을 띤 사건이다. 적의 칼을 피하지 않으면 나의 목이 베어지는 죽음의 순간이며, 설령 목숨을 보존했다하더라도 전쟁에서 패했다면 정치력에 의해 다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한 개인의 실존적 위기인 것이다.

이 작품에서 전쟁은 두 종류로 나타나 있는데, 바다와 남도에서 몸으로 겪는 이순신의 전쟁이 그 하나이며, 그것의 반대편에 존재하는, 의주 혹은 서울에서 귀로 듣는 임금의 전쟁이 다른 하나이다. 임금에게 전쟁은 사직의 위기, 곧 정치적 권력의 위기이지만, 이순신에게 전쟁은 생존의 위협, 즉 실존적 위기이다. 때문에 임금은 왜장 가토의 목으로 상징되는 승전소식에 목말라 하지만, 이순신은 '죽을 자리'로 상징되는 실존적 결단을 성찰한다. 임금의 전쟁은 사직의 위기가 해소되는 순간 끝나는 것일 수 있지만 이순신의 전쟁은 죽어야만 끝이 날 성질의 것이다. 다시 말해 몸의 욕구와 몸의 고통이 소멸되어야만 그의 전쟁은 끝난다. 이런 차원에서 이순신의 전쟁과 백성들의 전쟁은 같은 종류의 것이다. 이순신이 그토록 소원하는 '자연사'도 '몸의 죽음'과도 같은 차원의 상태, 고단한 생의 소란과 연명해야 하는 비루함이 사라지는

상태, 즉 ‘無’, 혹은 ‘정신적 평온의 경지’라 할 만한 심적 고요의 상태를 상징한다.

‘전쟁’이란 비일상적 상황 속에서 한 개인이 그런 정신적 평온을 의지적으로 실현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순신은 “적의 칼과 임금의 칼 사이에서 바다는 아득히 넓었고 나는 몸둘 곳 없다.”(1권 140면)라고 술회한다. 그는 ‘살아있음’ 혹은 ‘사이’만 분명하게 감각할 뿐, 진정한 자신의 존재기반을 잃은 허무적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적과 임금 어디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 어디에도 속박되지 않음을 말해 주기도 한다.

어두운 수평선 너머에서, 사각 사각 사각, 적의 함대가 노 저어 다가오는 환청에 시달리는 저녁이나 환도 두 자루와 면사침이 걸린 숙사 방에서 요를 적시는 식은 땀의 한기에 깨어나는 새벽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주 조선소를 돌아보았다.(1권 142면)

위의 묘사는 『칼의 노래』에서 자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으로서 이순신의 내면풍경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적과 임금은 이순신의 입장에서 분명 정치성을 띤 존재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의 노래』의 이순신에게 그것들은 아득히 먼 것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즉 적의 기척은 ‘환청’으로, 임금의 존재는 ‘면사침(免死帖)’으로 표상되어 벽에 걸려 있다. 그것들은 이순신의 실존과 분리되어 있고, 감각적으로 간접화되어 있다. 반면 ‘식은땀’으로 표상된 자신의 육체적 고통은 이순신의 몸, 실존과 밀착되어 있다. 이순신에게 있어 피아의 구별은 ‘환청’처럼 아득하고, 정치권력의 명령은 벽에 걸려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음으로 인해 이순신 내면은 정치권과 비판적 거리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식은 땀’, ‘무릎의 통증’ 등과 같은 촉각 이미지 외에도 이 작품을 통해 압도하는 감각적 이미지는 후각의 이미지이다. 특히 먼(이순신의 아들)의 젓냄새와 죽은 여진(이순신과 관계했던 관비)의 몸 냄새는 텍스트를 통해 누차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두 이미지는 즉물적으로는 썩어가는 냄새, 역겨운 냄새라 할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미지들은 반복적으로 나타나

면서 묘한 울림을 갖는다. 그것들은 어리고 순결하고 곱고 부드러운 것의 씹어짐을 환기하는 이미지로서 순신의 면과 여진에 대한 깊은 연민과 개인적 절망감을 되살려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적과 임금의 존재를 재현하는 감각과 커다란 질적 차이를 드러내기도 한다. 다시 말해 적과 임금은 역사적 상황을 빌려옴으로써 야기된 관념적 설정일 뿐, 실제감을 지니지 못하고 있는 반면, 면과 여진은 허구적 상상력 속에서 완전히 재해석되어 실제의 공백이 완전히 충전된 존재들로서 그려져 있다. 이는 김훈이 이순신의 임진왜란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 삶의 한 단면으로 되살려냄으로써 획득한 리얼리티일 것이다.

## 2. 탈정치성을 띤 '칼'

『칼의 노래』에서 전쟁으로 도탄에 빠진 사람들의 참상에 대한 묘사는 전투 장면의 재현 이상으로 빛을 발한다. 앞서 실제감을 획득하고 있다고 분석한 면과 여진도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환유라 생각한다. 전쟁의 아수라 속에서도 사람들은 먹고 배설하며, 해안과 바다에서는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가 풍기는 가 하면 육지의 밭에는 채소가 파릇하게 자라나기도 한다.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몸과 정신을 너무 손쉽게 팔아넘긴다. 세계에는 탈영, 사기, 협잡, 모함, 보복, 갈취…… 등, 온갖 악행들이 난무한다. 이 소설의 묘사에 의하면 전쟁은 특별하고도 예외적인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아주 추악하고 혹독한 생의 메타포라 할 것이다.

이순신은 자신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끝없는 허기와 비루한 생존 앞에서 무력하기만 할 뿐이다. 생이 이토록 누추하고 힘겨운 것이라는 환멸, 이 생을 살아낼 힘이 소진했다는 무력감 등은 적과 임금을 자신의 존재 바깥으로 밀어내려는 욕망을 심화시킨다. 허무주의자로 형상화된 이순신에게 있어서 이러한 욕망은 치열한 대결로 이어지지 않는다. 대신 절박한 문제의식으로 발전한다.

다시 삼도수군통제사의 교서를 받았을 때 나는 김덕령의 죽음과 광재우의 삶을 생각했다. 나는 김덕령처럼 죽을 수도 없었고 광재우처럼 살 수도 없었다. 나는 다만 적의 적으로서 살아지고 죽어지기를 바랐다. (1권 74면)

‘적의 적으로서 살아지고 죽겠다’ 바람은 사직의 희생양이 된 김덕령의 삶과 은둔자로 사라진 광재우의 삶을 지양한 삶이다. 김덕령은 도원수 권틀의 막하에 있던 의병장으로서 도원수의 명령에 따라 이몽학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출정했다. 그런데 그가 이몽학을 잡기 위해 부여에 입성하기 전, 이몽학은 부여의 칼을 맞아 죽고 반란군은 이미 흩어진 상태였다. 서울로 압송된 이몽학의 부하들이 김덕령을 모함했다. 김덕령의 부여 진입이 늦어진 까닭은 그가 이몽학과 내통했기 때문이라고 혐의를 씌웠다. 도원수는 김덕령을 체포하여 서울로 보냈고, 그 때 의병장 광재우도 얽혀들어 서울로 압송되었다. 김덕령은 의금부에서 한 달 동안 여섯 번의 심문을 받았고, 결국 매를 견디지 못해 죽었다. 광재우는 거듭된 심문 끝에 겨우 혐의를 벗고 풀려났다. 그는 풀려난 뒤 군대를 해산하고 산으로 들어가 다시는 내려오지 않았다.

이순신은 장살(杖殺) 당한 김덕령의 수동적인 희생도, 세상을 등진 광재우의 소극적 저항도 아닌 제 3의 길—‘자연사’를 택한다. 그가 선택한 ‘자연사’란 ‘죽여야 할 것들을 다 죽여서, 세상이 스스로 세상일 수 있게 된 이후’(1권 26면)의 죽음이라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소멸을 운명으로 긍정하는 삶의 태도”<sup>6)</sup>, 즉 허무주의를 내포한다. 칼은 ‘자연사’를 지향하는 이순신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죽여야 할 것들을 다 죽여서’ 세상을 정화하고자 하는 이순신의 소망을 실현하는 대리물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배설의 탈영 기미를 느꼈을 때, 좀처럼 달래지지 않던 칼의 울음, 면을 죽인 아베의 목을 벨 때 전해져온 칼날의 진동 등에서처럼 『칼의 노래』에서 ‘칼’은 이순신의 ‘순결하고 단순한’ 윤리의식과 등가를 이룬다. 달리 말해 ‘임금의 칼이 닿지 않는 자리’에 세우고 싶었던 충(忠)의 메타포라고 할 수 있다. ‘순결하고 단순하다’고 한 것은 칼로 벨 수 있는 것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칼은 탈정치성, 탈영웅성, 제의성을 띤다. 배설과 아베의 경우에서 드러났듯이 이순신의 칼은 탈영하려는 비겁한 배설도, 전장(戰場)의 배후에 빠져 있다가 전공(戰功)만을 챙기는 파렴치한 진린도, 그 어떤 정치적 적도 응징하지 못한다. 요컨대 『칼의 노래』의 칼은 정치성을 거세된 적

6) 김동식, 「폭력의 언표들과 죽음의 위상학」, 『문학판』, 295면.

(악)만을 벨 뿐이다.

정치적 맥락 바깥에서 존재하는 순결하고 치열한 삶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칼의 노래』를 통해 이순신은 치열하게 ‘충(忠)’을 성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속사에 ‘면사첩’이 걸려 있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듯이 그의 생은 ‘임금의 권력’ 허부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그가 실존적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죽음 뿐이다. 죽음은 ‘싸움을 문득 고요하게’ 하는 ‘세상의 끝’이다. 그러나 “칼로 베어지지 않는 적들을…… 이 세상에 남겨놓고,…… 내가 먼저……” (2권 196면) 간 저 세상일 뿐이다.

### Ⅲ. 부르주아 여성으로 재창안된 봉건 여성—『황진이』

#### 1. 근대적 여성 주체의 내적 모순

황진이는 양반가문을 스스로 이탈하여 천민기생으로 되어 자아 정체성을 주체적으로 구성한 인물이다. 이런 인간상이 조선 중종조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했는가의 여부를 문제삼는 것은 이 작품을 논의할 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16세기의 역사 속에 남아있는 흔적을 21세기에 수습하여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전경린의 『황진이』는 어디까지나 21세기의 ‘황진’이기 때문이다.

황진이는 비록 서녀이긴 하지만 그 당시의 결혼관행을 따라 반가의 여인으로서의 삶이 보장되었던 신분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봉건질서를 수동적으로 내면화했던 당시의 여인들과는 다른 길을 걷는다. 신분상 낮아지되 결혼을 포함한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감당하고 구성할 수 있는 길을 택한다. 그것은 가문의 속박과 위계질서를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으므로 자유의 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가문이라는 안정장치가 없으므로 험난하고 위협스런 길이기도 하다. 이런 선택은 봉건적 질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결단이면서 근대지향적인 것이다. 근대적 주체로서 여성이 표상하는 근대성은 ‘지금 있는 현재를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대안적 미래를 꿈꾸는’ 것, ‘모호성, 불확실성, 위기 등을 의미있는 것으로 개조함으로써 당연시되었던 전제들과 독단적인 자



기만족을 붕괴시키고자' 7)하는 것 등으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라에서 정하는 일이라면 하늘의 법인 줄 알고 사람들은 따르지만, 나라의 벼슬아치들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모른 채 이익만 추구하는 모리배들이지요.……”(1권 174면)

위의 인용문은 진이가 부친 황진사에게 절연을 선언하는 장면에서 발견되는 진이의 대사 가운데 일부분으로서, 위계적인 사회구조와 지배계급의 사유양식에 대한 진이의 통렬한 비판이 잘 드러나 있다. 이렇듯 그녀의 근대 지향적 사고는 강한 反봉건성을 띤다. 이러한 사고는 그녀의 독서경험에서 비롯된다. 진이는 <내훈>이나 <삼강행실도>나 <여교>보다 경서나 문학작품, 역사서 읽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그런 교양을 토대로 그녀는 <여교>의 억압적 논리를 날카롭게 읽어낸다.

조선시대의 자아-기술은 가족(가문)의 유지와 지속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자아를 희생하여, 가족-자아를 형성하는 일은 성별과 지위를 막론하고 적용되었지만, 그 안에서 성별에 따른 권력의 차이는 결정적으로 달랐다. 즉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질서에서 여성의 활동은 후손(남아)를 생산하는 것과 봉제사 접빈객의 가사노동의 영역으로 한정되었다. <여교>는 여성에게 특히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조선시대 성별 규범을 당시 여성들에게 내면화시키기 위한 훈육서였다. 진이는 <여교>를 읽으면서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고,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

다른 생의 가능성은 정말 없을까. 이렇게 잘게 쪼개진 삼엄한 규율의 세계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전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한 사람의 신은 어디서 찾는단 말인가.(1권 52면)

“유독 여자에게 심한” 억압적 규율의 인식하면서 가족-주체의 운명이 아닌

7) 리타 펠스키, 심진경·김영찬 역, 『근대성과 페미니즘』, 거름, 1998, 40면.

개인-주체의 가능성을 모색하게 된다. 단지 심리적인 답답함으로 표출되었던 이 문제의식은 계모 신씨부인의 죽음을 계기로 그녀의 숨은 신분이 드러나고 정혼처가 바뀌는 과정을 거치면서 확고하게 표면화된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진이의 문제의식은 성차별에 대한 것에서 신분차별에 대한 것으로 급격히 선회한다.

“네 놈(대장장이 수근: 필자)의 씨를 받아 이 땅 위에 철천지한이 될 쌍것들을 낳겠느냐. 네 이놈, 너까지 나를 능멸하다니....(1권 206면)

유교적 담론에서 성은 쾌락보다는 생식과 연결된다. 이런 전제에 근거하여 유교 사회에서 여성은 모성에만 국한된다.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진이는 ‘모성 거부’를 확고하게 표현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녀의 모성거부가 봉건적 성담론의 범주가 아니라 계급적 담론의 범주에 속한다는 점이다. 즉 그녀는 남성과 여성에게 이중적으로 차별 적용되는 봉건적 성규범에 대한 거부로서 기생이 된 것이 아니다. ‘천출’(천자수오법(賤者隨母法)에 의해)이라는 신분적 차별 권역 바깥으로 탈출하기 위해 성적 자유의 길을 택한 것이다.

차별의 시선을 벗기 위해 능동적으로 천한 신분의 정체성을 택한 것은 봉건사회라는 배경을 고려할 때 분명 자유를 얻기 위한 실천임에 분명하다. 그녀의 어머니가 채홍준사의 관비차출에 저항하기 위하여 스스로 맹인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기생이 된 황진이의 존재전환 역시 세계질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분명 근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근대성, 반봉건성을 지향하는 그녀 스스로 다시 신분차별의 봉건질서를 재생산하고 있어 그녀를 근대적 여성 주체로 평가하는 데에 망설이게 한다. 진이가 획득한 기녀로서의 성적 자유와 성적 선택권은 유독 사계급 내부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이다.

위의 인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진이는 대장장이 수근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끝내 거부하며, 의원 홍경화과 거상(巨商) 백고정의 청혼도 거절한다. 물론 그녀의 자율적인 선택권에 의한 거절이긴 하지만 공교롭게 진이에게 배척당한 인물들은 의사, 상인, 대장장이 들로서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위계

상 천한 계급에 속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기 어렵다. 士에 속한 사람들과의 성적관계는 관대하고 대담하게 묘사되어 있는 반면 士 계급 외의 인물들과의 성적관계는 묘사되지 않는 수사적 불균형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사종과의 사랑, 이별, 계약동거 등을 통해 구현된 낭만적 사랑<sup>8)</sup>은 근대적 여성 주체로서의 섹슈얼리티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진이의 자유연애는 신분 차별의 논리를 되풀이하는 내적 모순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따라서 『황진이』에서 근대적 여성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기녀가 되는 과정까지를 지탱하던 근대 지향적 사고는 기녀로서의 진이의 삶을 그럴 때는 점점 희석되어짐으로써 진이라는 인물은 봉건적 질서의 영향권역으로 다시 회귀하는 한계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의 부르주아 결혼 풍속도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본다. “한국 사회의 낭만적 사랑과 성은 진정한 의미의 개인의 탄생과는 거리가 있었고, 여전히 가족-자아가 지배적”<sup>9)</sup>이라는 지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 사회에서 낭만적 사랑은 결혼을 통해 또 하나의 가족을 만들기 전의 연애과정으로 이해되어질 뿐, 결혼과 결혼 후의 가족관계는 기존의 가족질서의 영향권 아래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황진이』는 이러한 부르주아 가족질서를 뒤따르는 선에 머물러 있어, 90년대 이후 부르주아 가족질서의 변화를 모색하는 다양한 진보적 성담론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 2. '자본화된 몸'의 기호

기생은 천한 신분이었지만 귀족 부녀자들보다 더 많은 사치와 자유를 누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자유로 인해 기생들은 정체성을 주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가무와 시, 글씨, 그림 등을 지속적으로 연마하여 문학, 회화,

8) 젊은 남녀가 독자적으로 자신의 반려를 선택하는 행위는 부모로부터의 경제적·심리적·사회적 독립과 함께 이루어진다. 명실공히 독립적인 개인이 탄생하는 것이다. 여기에 낭만적 사랑은 결혼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며, 성은 이 사랑을 완성하는 상징으로 나타난다: 조수현, 「섹슈얼리티를 통해 본 한국의 근대성과 여성 주체의 성격」, 『섹슈얼리티강의』, 동녘, 2003, 50면.

9) 위의 글, 51면.

음악 등의 발전에 기여를 하였으며, 문화 전수자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반면 노류장화(路柳牆花)라 하여 '성애의 상품화'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상징의 예가 되기도 하였다. 전경린의 『황진이』는 천재적인 문인으로서의 황진이보다는 매혹적인 여성으로서의 황진이가 한층 도드라져 있다. 기생에 대한 두 가지 접근 가운데 후자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진이의 성적 매력과 상품적 가치가 형성되는 메카니즘은 현대 대중 스타의 '몸값 만들기 프로젝트'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서 매우 흥미롭다. 타고난 미모와 천부적인 재능, 자본 회수를 압박하지 않는 스폰서(수근), 몸값을 오르게 하는 루머(선비의 상여 사건), "진의 관리를 맡은 옥섬"(1권 199면)의 매니지먼트, 치열한 스카웃전, 거품인기에 만족하지 않는 끝없는 자기연마, 등등. 황진의 일대기를 영웅서사로 이끌어가는 내적 논리에는 은밀히 '스타 메이킹, 스타 마케팅'의 전략이 녹아들어와 있다.

진은 여자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남자 스스로 보아 느끼는 게 아님을 알고 있었다. 보다 강력한 남자의 인정과 몇 남자가 퍼뜨리는 소문으로 인해 아름다움은 부풀어 오르고 한번 과장된 아름다움은 신비한 공신력을 얻어 검증될 필요도 없이 고스란히 수용되는 것이었다. 진은 미의 정치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극대화시킬 줄도 알았다.(2권 112면)

1990년대 들어서 "몸은 정신의 외화이고 따라서 그 몸의 건강성과 아름다움의 가치는 정신의 건강한 자질의 반영에서 나오는 것으로 여기던 전통적 생각이 뒤로 물러나고 대신 각종 기호의 장식과 연출을 통해 몸의 미학적 가치는 배가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유통"<sup>10)</sup>되기 시작한다. 소비의 대상이 된 몸의 미적 가치는 외적 치장을 포함한 다양한 연출을 통해 획득된다. 인용문은 외모에 대한 미학적 대중주의가 어떻게 획득되어지는가에 대한 분명한 서술로서 이것은 분명 21세기의 문화담론이다. 따라서 『황진이』는 설정만 16세기에서 벌여왔을 뿐, 21세기의 문화적 징후들로 넘쳐나는 소설로 창안되어 있다.

10) 이성욱, 『김추자, 선테이서울 게다가 긴급조치』, 생각의 나무, 2004, 142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창녀’를 기술하는 데 가장 일반적인 메타포는 ‘상품’일 것이다. ‘창녀’는 남성 구매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가능한 자신을 유혹적으로 만들도록 강요당하는 존재이면서도, 성적 쾌락이라는 소비주의 담론의 차원에서 그녀의 육체는 모든 차이를 뒤섞는 장소로서의 상징성을 내포한다. 다시 말해 “소비는 경제적인 의미와는 별도로 물질의 부정과 죽음으로 향하는 과정을 상징하는 소모와 낭비, 파괴를 연상시킨다.”<sup>11)</sup> 이 말에는 ‘모든 것을 고갈하고 탕진하게 하는’이라는 부정적 함의와 ‘모든 차이를 뒤섞어 전복을 가져올 위험이 있는’이라는 긍정적 함의를 함께 지닌다.

그런데 『황진이』는 안타깝게도 ‘창녀’의 긍정적 함의를 구현해 내지 못했다. 그녀의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묘사의 대부분은 빼어난 미모, 뛰어난 기예, 품격높은 교양, 대담한 성적표현, 세련된 치장 등을 설득하는 기호(擬古의 修辭)들로 넘쳐난다. 특히 그녀의 신체와 차림새를 묘사 하는 데 엄청난 상상력이 투입되어 있다. 그에 반해 책, 음악, 여행 등 그녀의 내면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기호들은 지나치게 표피적이고 상투적이다.

보통 여자들보다 약간 큰 기의 진은 미색 회장저고리와 녹두빛 치마를 입고 혼자된 여자들의 것인 흑각죽잠을 머리에 꽂고 검정색 피초혜를 신고 있었다. 그윽린 낮빛과 이마의 상처로 인해 단단하고 매워 보였으며 눈 밑 그늘이 깊었다. 그러나 무심하게 빛나는 눈은 문득문득 광채를 발했고 꼭 다문 입에는 잔잔한 평화가 감돌았으며 두 뺨에는 나이에 비해 아무런 고집도 욕망도 없이 순결해 보였다.(2권 281면)

진이는 만년에 노장사상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모든 경계와 분별을 뛰어넘는 ‘小搖遊’를 지향하는 정신적 변화를 보여준다. 금강산 유람과 2년여에 걸친 전국 유랑도 그런 변화의 한 단면이다. 그런데 그녀의 유랑생활에 대한 서술은 후일담 형식의 보고적 서술로 소략한 반면, 달라진 그녀의 외모에 대한 묘사는 위의 인용에서와 같이 대단히 세부적이면서도 구체적이다. 게다가 “그 옛날과 똑같이, 한번 진을 본 사람들은 무엇인가 홀린 듯 눈을 떼지 못하

11) 리타 펠스키, 앞의 책, 126면.

였다”와 같은 서술들까지 덧붙여져 있어, 여전히 진이의 육체적 매력에 『황진이』의 상상력이 치우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몸이 스스로 가치를 생산하는 자본이며, 때문에 투자의 대상이 된다는 논리는 신체투자와 관련된 산업영역(성형외과, 피트니스 클럽 등)의 발달로 점점 더 뚜렷하게 확인되어 가고 있는 요즘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시대의 작품 『황진이』가 몸-자본의 지배력을 지닌 황진을 형상화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정신적 성숙이 빠진 삶의 질의 고양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듯이, 육체적, 외형적 매력에 대한 묘사만으로는 황진이라는 인물의 온전한 가치를 제대로 살려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 IV. 결론

『칼의 노래』는 2004년 9월까지 개정판 17쇄까지 발행된, 소위 말해 흥행에 성공을 거둔 작품이다. 전경린의 『황진이』는 이태준의 『황진이』(1935년), 최인호의 「황진이 1·2」(1972년), 김탁환의 『나, 황진이』(2002년), 홍석중의 『황진이』(북한, 2002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황진이 소설’의 하나로서,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들에 대한 관심은 대중적 역사극과 역사소설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경향<sup>12)</sup>의 바람을 타고 고조된 역사물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맞물려 있다. 두 작품은 거대담론으로서가 아니라 미시담론의 틀로서 역사적 인물을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겹쳐질 뿐 세부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커다란 질적 차이를 보인다.

『칼의 노래』의 특이점으로는 무엇보다 우리문화 속에서 민족영웅으로 굳어진 이순신이란 인물을 탈영웅화하는 길을 택한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역사나 명분보다는 생존과 일상이라는 의미망 속에서 전쟁과 충을 성찰하게 했

12) 최원식은 역사극과 역사소설의 새로운 경향의 근원에 소설 『동의보감』의 작가 이은성을 들고 있다. 이은성은 반체제적이든 체제적이든 남성영웅들의 투쟁을 축으로 삼는 사극과 역사소설의 캐논을 파괴하고, ‘작은 이야기’로 역사물의 코드를 바꾼 선구적 원천을 이루었다고 평가한다. 최원식, 「남과 북의 새로운 역사감각들」, 『창작과 비평』, 2004, 여름, 50-51면 참조.

다는 점에서 거대담론을 택한 이전의 역사소설들이 지녔던 압박감을 산뜻하게 벗어나고 있다. 이는 달리 말해 『칼의 노래』가 정치성, 계몽성을 제거된 자리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칼의 노래』가 문학적 진지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이 작품은 촉각과 후각의 이미지를 통해 역사나 신화 속에서 증발해 버리는 현실감각, 실존감각을 아주 생생하게 되살려냈으며, 이 점은 이 작품이 거둔 성취 가운데 긍정적으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 생각된다. 요즘 대중문화의 주류 매체인 멀티미디어가 시각적 이미지로밖에 말할 수 없는 장르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소설 등의 인쇄 매체가 대중들에게 새로운 감성과 새로운 상상을 제공할 수 있는 고유영역을 독창적으로 개척해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황진이』는 『칼의 노래』가 택한 탈영웅주의와는 다른 방향, 즉 황진이를 반봉건적 영웅으로 부각시키는 서사논리를 따르고 있다. 봉건질서의 부조리함, 억압성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 대목이라든가, 가문이라는 안전장치를 스스로 이탈하여 불투명한 미래를 향한 자신의 존재를 던지는 선택, 자울과 평등 속에서 이루어진 낭만적 사랑 등 그녀의 운명을 이끌어가는 힘들은 여러모로 근대적 사유와 맥이 닿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성적 선택권은 여전히 사농공상의 차별을 뛰어넘지 못함으로써 신분차별이라는 봉건적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해내는 내적 모순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근대적 주체의 발전적 과정을 짐작하게 할 수 있는 진이의 내적 성숙에 대한 묘사들은 매우 상투적이고 보고적 서술로 이루어져 있다. 이 점은 황진이라는 인물을 근대적 개인으로 평가하는 데에나, 이 작품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 여러 방면의 설정들이나 서사논리는 근대 지향적 사유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지만 세부들을 묘사할 때의 상상력은 현대의 소비주의, 부르주아 가족질서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추동되는 묘한 균열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황진이』는 반봉건적 영웅을 형상화한 진보적 담론으로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진이의 옷과 몸, 성애적 장면에 대한 길고도 상세한 묘사는 그녀의 인물됨을 구체화하는 방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녀의 성격적 리얼리티를 박탈하고 그녀를 대중스타 이미지에 육박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끌려 간다. 때문에 텍스

트 내부에서 근대적 여성 주체로서의 황진이의 모습은 점점 증발하고, 대중적 소비주의의 욕구를 충족해 줄 부르주아 영웅으로서의 면모가 한층 도드라져 나타난다. 이것은 소비경제의 성장과 여성의 성적 자유 사이의 복잡한 상호의존 관계를 보이는 사회현상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훈, 『칼의 노래 1-2』, 생각의 나무, 2004.
- 전경린, 『황진이 1-2』, 이룸, 2004.
- 대중서사학회 편, 『역사소설이란 무엇인가』, 예림기획, 2003.
- 오생근·윤혜준 편, 『성과 사회』, 나남출판사, 2000.
- 이성욱, 『김추자, 선대이서울 계다가 긴급조치』, 생각의 나무, 2004.
- 한국성폭력상담소 편, 『섹슈얼리티강의』, 동녘, 2003.
- 손병우, 「TV 사극, 역사의 행간에서 벌이는 게임」, 『창작과 비평』, 2001. 가을.
- 최원식, 「남과 북의 새로운 역사감각들」, 『창작과 비평』, 2004. 여름.
- Adorno, Th. W. & M. Horkheimer, 김유동 역, 『계몽의 변증법』, 문학과 지성사, 2001.
- Felski, Rita, 심진경·김영찬 역, 『근대성과 페미니즘』, 거름, 1998.

**【Abstract】**

## Popularization of Historical Characters

Huh, Myung-sook

Considering our cultural circumstances, Historical novels are very popular genre. By analyzing 2 historical novels, Kim Hoon's, 'The song of the sword' and Jeon gyeong-lin's, 'Hwang jin-yi', the writer of this article tried to find out what culture cord with two works are the facts of the historical novels which didn't be recorded in history are filled up by the imagination of the author. And this imaginative power of author is deeply influenced by realistic connection and the sense of history in public of those days. This article was attempted from this basis.

Kim, the author of 'The song of the sword', chose of the way in which broke from the imagination of Yi soon-shin which was fixed national hero in our culture. This work had points of view not history or justice with historical novels but subsistence and daily living and was reflected on war and loyalty. These are distinguished this work from previous historical novels. Differently speaking, 'The song of the sword' can be said a historical novel to weaken the political characteristic and enlightenment characteristic. But then, this work is not said that 'The song of the sword' has no literature seriousness. On the contrary this work vividly revived the sense for the real and the existence sense which are evaporated in history or mythology. And these factors will be able to be evaluated one of the literary accomplishments which this work gets. Considering that multimedia which is the main stream of the culture in nowadays can express only visual image, because 'The song of the sword'

pioneered creatively specific area which printed medium is able to offer the masses new sensibility and imagination through.

Jeon, the author of 'Hwang jin-yi', tried to express heroine Hwang jin-yi who revolted against feudalism. Jeon is saying that Hwang jin-yi designed her life for herself. For example, Hwang jin-yi pointed out the absurd of the feudal, refused her spouse who decided from the family and chose uncertain future by becoming a 'kisaeng' (a singing and dancing girl), and accomplished romantic love which is impossible at that time. Even if these were in accord with modern ideas, in this work, Hwang's sexuality didn't overcome distinction of the traditional 4 classes of society.-scholars, farmers, artisans and tradesmen. As a result this work has the inner contradiction to reproduce feudal ideology. Also, the inner description which is the possibility of watching for the inner developmental process of modern subject was composed of platitude and description for report. Whereas the description of cloths and body was concrete and abundant. In short, the author tried to materialize cogitation which aim at modern through this work. But it was not success. On the contrary when Jeon described details, her imagination showed chasm to vacillate by consuming attention and the ideology of bourgeois family order of our own time.

**Key Words** : image of olfactory sense, image of tactual sense, nihilism, anti-feudality, ramantic love, the propensity to consume, sexuality